

포항시 승격 60주년 기념
제6회 포항 국제 불빛 축제
The 6Th Pohang International Fireworks Festival

7월 24일 북부해수욕장
전야제(전국 해변 가요제)

7월 25일 북부해수욕장
식전행사(한여름 밤 콘서트)
축하공연
개막식, 주제극
포스코 국제뮤지컬꽃연출

7월 26일 형산강체육공원
형산강배 옹선대회
불빛파레이드
시 승격 60주년 경축행사
미니불꽃쇼

특별문화행사
전국특산물 대전(두호해안)
포항바다국제연극제(환호공원)
: 7월 2일~8월 4일
불빛미술대전(문예회관)
: 7월 21일~7월 25일

불빛축제와 함께하는
즐거운 부대 체험행사

전국 특산물 대전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불빛 모래조각전
해병문화체험
해병함정 공개행사
경북 축제홍보센터
불빛 CITY투어
불빛사진 공모전
유등제
한여름밤의 흥
위그선 체험
전국 배드민턴대회
자매도시간 체육대회

바다에 그리는 꿈!
영일만에 영그는 희망!

기간 : 7.25(토)~26(일) 2일간 ※24(금) 전야제

장소 : 북부해수욕장·형산강체육공원 등 관내 일원

주최 : 포항시 (불꽃주관 POSCO)



열린 포항

www.ipohang.org

접시꽃

니네 집 마당을 둘러싼 접시꽃 대궁처럼 키빱이만
멀썩한 까까머리를 토담 그늘에 세워두고 살그미
대문 비집고 들어선 너는 기척도 없고 킁킁 세퍼드
쇠줄 끄는 소리가 골목을 출렁다리처럼 흔든다 덕
구 베쓰 메리 쫓!

접시를 돌린다 니 무릎을 지운 바다색 주름치마 주
름 헤아리며 접시를 돌린다 빨강 하양 분홍
예서제서 배틀배틀 쓰러져 가는 접시를 부라부라
살려, 살려놓고, 니가 사라진 뜰팡 땃돌만한 돌멩
이에 올라 까치발을 뜬다 간맹간맹 으으, 비명을
깨물며 흘날리는 저 접시, 접시꽃

차영호 시인

1954년 충북 청원 출생. 1986년 「내륙문학」으로 등단. (사)한국작가회의 회원.
시집 「어제 내린 비를 오늘 맞는다」



» 04



» 08



» 12



» 18



» 26

2009 7 CONTENTS

- 04 **특집** | 역사적인 영일만항 개항과 배후단지 현황
- 08 **테마기행** | 한여름 축제·문화도시 포항에서 여름휴가를...
- 12 **기획** | 신나는 여름, 보람된 방학
- 14 **우리 고장의 전래동화** | ⑤ 주진 나루 뱃사공 노인
- 16 **문화마당** | 공연, 행사, 단신, 기타
- 18 **캠페인** | 포항 쌀 소비 촉진 캠페인
- 19 **포커스** | 포항시립미술관 수강생 모집
- 20 **시정브리핑** |
- 23 **의정브리핑** |
- 24 **포항레이더** |
- 26 **I♥POHANG** |
- 27 **지상갤러리** |



포항의 여름을 즐기는 시민들
사진 • 정미향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방진모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김경란
- 담당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Tel : 054 · 270 · 2334
- 발행일 : 2009년 7월 25일 (통권 72호)
-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Tel : 054 · 275 · 0558
- 인쇄 | 남진인쇄 Tel : 054 · 274 · 1567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일만항 2일반산업단지 전경

글로벌 포항호가 마침내 닻을 올린다

●●● 1991년 3월 7일 영일만항 건설을 시작한 지 18년 5개월여 만인 오는 8월 8일 1단계 사업인 컨테이너부두 4선석이 52만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아 역사적인 개항을 하게 된다.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포기, 어업권 보상, 매립에 필요한 토취장 확보, 그리고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자 유치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여기에 정부의 투 포터(Tow Port) 정책과 L자형 국토개발 정책으로 영일만항 건설은 그야말로 곳곳이 암초였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포항시, 그리고 시민 모두가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영일만항 개발에 혼신을 쏟았다. 그 결과 2004년 6월 10일 구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4월 28일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4선석에 대한 역사적인 기공식이 있었다. ●●●



영일만항 개항은 포항 발전의 새로운 전기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개항은 지역 역사상 최초로 국제적인 상업항을 갖게 되는 것으로 포항이 국제항만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생산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영일만항 개항은 POSCO에 이어 국제물류라는 새로운 차원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포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포항호가 마침내 닻을 올리는, 영일만 신화 재창조의 출발이 될 것이다.

포항시는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영일만항 개항을 앞두고 적극적인 포토세일을 전개했다. 지난 2007년부터 항만 개장에 대비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FESCO 선사유치 및 홍보세미나 개최, 구미지역 물동량 유치를 위한 구미-포항 경제협력MOU체결, 경부고속도로 구미지역 내 영일만항 홍보조형물 설치, 일본 도쿄에서의 영일만항 포토세일,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외 화주, 포오딩, 선사 등을 대상으로 '영일만항 서울 국제 마케팅 페어'를 전개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코오롱, POSCO와 계열사, 대경섬유직물조합, (주)대우로지스틱스, 현대제철, 대경기계조합, 포항상공회의소 15개 회원업체 등과 총 26만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영일만항 이용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부 수출입 업체와 영일만항 이용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경산 진량산업단지 수출입 화주를 대상으로 포토세일을 실시하는 등 약 10만 TEU의 추가 물동량 확보에 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항만 활성화의 관건이 될 선사 유치 및 항로 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극동러시아, 일본, 중국, 동남아 및 연안운송 등을 개설하고 STX PAN OCEAN, FESCO사, 금상선, 천경해운, 고려해운 등과 선사 유치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는 화주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물동량 확보에 전력을 바칠 것이다. 지난해 4월 POSCO, 현대제철, OCI 등 포항지역 MOU업체는 물론 아시아 글라스, DK케미칼 등 구미지역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동량 조사 및 유치 활동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는 이들 업체의 수출입 담당책임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1부서장 1업체 맨투맨식 포토세일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물동량 협약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포항시는 화주나 선사들의 영일만항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컨테이너세 면제를 비롯해 항만시설 사용료 100%, 예선과 도선료 30% 감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TEU당 4만원 이내의 화주 및 물류기업에 대한 이용 장려금과 1개 선사 당 3억 원 이내, 3년간 5~7개 선사에 대해 TEU당 적재 물량에 따라 항로연장 지원금을 선사에 지급하고 손실액의 50%이내에서 1개 선사 당 최대 10억 원 이내에 특화항로 개설에 대한 운항손실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완벽한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수요자 중심 항만 운영이 과제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개항은 연료와 제품을 수송하는 전통적인 항만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관, 유통, 포장, 재가공 등을 위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배후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수송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포항이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제 포항은 일본과 극동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권의 물류중심지에 위치하게 된다. 앞으로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포항 물동량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물동량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극동 러시아 지역으로 가는 기아현대자동차와 구미지역 화주업체 DK케미칼 등의 물동량 유치를 위해 영일만항 인입철도 개설은 물론 국도대체 우회 도로를 조기 완공하는 등 완벽한 물류 인프라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항로를 개설하여 화주기업들이 편리하게 화물을 수송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항만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40년간 POSCO를 통해 철강도시라는 제1의 영일만 기적을 이루었다면 이제 포항은 영일만항을 통해 국제물류 중심도시라는 제2의 영일만 신화를 잉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항만배후 산업단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영일만항 배후단지는 4개 단지에 총 6백43만7천㎡의 규모를 자랑한다. 먼저 총사업비 1,201억 원이 투입되는 일반산업단지(98만771㎡)는 지난해 8월 포스코 연료전지공장(20만7천㎡)이 이미 가동에 들어갔으며, 현대중합금속(10만7천㎡)이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시설인 한전부지(7,068㎡)도 지금 조성 중에 있다.

특히 일반산업단지 내 330,000㎡는 최근 부품소재 전용단지로 지정되어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사업비 750억 원을 투입, 내년 6월까지 부지를 조성하여 부품소재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외국인 기업유치를 통한 고도의 기술 이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일반산업단지(71만9천㎡)는 총사업비 950억 원이 투입되며 강림중공업 등5개 업체가 입주한다. 지난 5월 준공식을 가진 강림중공업(16만5천㎡)은 조선기자재를 생산하고 있고, 현대중공업(확장부지5만7천㎡)와 엔케이(11만3천㎡)도 6월에 준공했다. 참스틸ENG(21만1천㎡)와 KIC(3만6천㎡)는 오는 8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3일반산업단지(30만7천㎡)는 2단계 현대중공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지난해 개발계획수립 및 지정용역,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를 마치고 올해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인가를 득하여 2010년부터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 후 단지 조성을 진행하게 된다.

4일반산업단지(4백18만3천㎡)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투자사업자 구성과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 외에도 용한1지구 현대중공업(9만6천㎡)이 가장 먼저 공장을 가동하여 이미 조선 블럭을 생산하고 있으며, 용한2지구는 현재 80%가량 조성을 완료하고 공장용지를 분양중에 있다.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2009년 하반기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 ① 개항을 앞둔 영일만항
- ② 영일만항이 개항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여름 낭만이 있는 포항에서 휴가나기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음력 6월 15일로 신라 때부터 유래된 유두(流頭)라는 명절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이날 가족들과 함께 맑은 개울물이나 산간폭포를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으며

하루를 즐겼다. 그러면 상서롭지 못한 것을 쫓고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여겼다. 지금의 피서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 고난의 엑소더스와 같은 피서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지만 피서의 역사와 전통은 이토록 길고 깊다.

162km에 달하는 수려한 해안선을 따라 전개되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포항. 그래서 포항은 여름이 좋다. 포항의 여름은 그야말로 낭만과 추억을 만드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포항을 철강도시로 안다. 포항의 길웃만 보았지 그 속살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빛과 희망, 젊음과 낭만, 축제와 문화로 채워지는, 여기에 동해의 청정 먹을거리까지 보태지는 포항에서 보내는 휴가는 후회는커녕 포항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들 것이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푸른 파도를 마셔보자

포항지역 해수욕장들은 7월 1일 일제히 개장했다. 포항시와 각 번영회는 피서객들의 불만 제로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했다. 비치크리너가 운행되면서 해수욕장 백사장들이 한결 깨끗해졌고, 각종 편의시설도 새롭게 유지 보수되었다. 특히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포항만의 '표준협정요금'을 설정하여 피서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다.

• 칠포해수욕장

포항시에서 북쪽으로 13km 거리에 있는 칠포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2km, 폭 70m, 평균수심 1m, 총넓이 9만 7,000평에 하루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이다. 백사장은 왕모래가 많아 야영하기에 최적지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주변 갯바위는 바다낚시 장소로 전혀 손색이 없다. 우거진 송림과 1,000여대의 주차시설, 샤워장, 탈의장,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올해는 바다시청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월포해수욕장

백사장 길이가 900m, 폭 70m, 총 1만 9,000평의 백사장에 하루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심이 얇고 물이 맑기로 유명하다. 조용한 분위기와 깨끗한 물로 점차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민박이 잘 형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야외공연장이 건립되어 다양한 공연행사로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곳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곳으로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아 썩치 등 바다고기가 풍부하여 주변의 갯바위와 방파제에서 즐기는 낚시는 일품이다.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2km 내려가면 이가리 해안의 솔밭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자연발생 유원지는 해수욕과 삼림욕을 함께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 화진해수욕장

포항시에서 동해안 7번 국도를 이용, 영덕 방면으로 20km지점에 위치한 화진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400m, 폭 100m, 평균수심 1.5m, 총 1만여 평의 백사장에 하루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동해 바다의 푸른 파도와 주변 경관을 만끽할 수 있고, 백사장

① 수심이 얇고 물이 맑기로 유명한 월포해수욕장. 올해는 다양한 공연행사로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변에 소나무가 많고 물이 깨끗해 가족단위 피서를 즐기기에 그저 그만인 곳이다. 게다가 내연산 12폭포와 보경사를 인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경하고 해수욕을 즐기 위해서라도 꼭 들릴만한 곳이다.

● 구룡포해수욕장과 도구해수욕장

우리나라 지도에서 호랑이 꼬리부근, 호수 같은 영일만을 열고 있는 구룡포해수욕장은 포항에서 24km, 구룡포읍에서 1.5km가량 떨어져 있다. 반달형의 백사장은 길이 400m, 폭 50m, 넓이 6,000평으로 하루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야영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푸른 동해를 직접 조망할 수 있다.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해안경관이 수려하고 영일만 해돋이와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잘 구비되어 있다. 도구해수욕장은 연오랑 세오녀의 전설이 서린 곳으로 백사장 길이 800m, 폭 50m, 넓이 1만2,000평 규모로 하루 2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포스코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각급 학교와 일반 기업체의 하계수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북부해수욕장

백사장길이 1,750m, 너비 40~70m, 면적 3만 7,207㎡로, 포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다. POSCO와 영일만이 보이며, 백사장 모래가 고와 가족단위 피서지로 최적지이다. 특히 바다시청 앞 해상 250m에 최대 높이 120m까지 물을 뿜는 고사분수대가 설치되었다. 바다에 떠 있는 분수대는 국내 최초이다. 분수대 주변에는 사방에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등이 설치돼 밤에는 물줄기가 6가지 색채를 띠게 된다. 밤에는 포스코 야경을 배경으로 형형색색 다채롭게 변화하는 조명을 통해 환상적인 물보라 장관이 연출되며 최근에 조성된 테마거리와 함께 지역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비경을 품은 푸른 계곡에서 낭만을 느껴보자

포항은 해안선도 아름답지만 그 너머에 펼쳐지는 절경은 가히 으뜸이다. 가족과 함께 비경과 운치,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포항의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하옥과 내연산 계곡은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비경과 운치를 자랑한다.

● 하옥계곡

하옥계곡은 포항시 최북단에 북으로 청송군 부동면, 동으로 영덕군 달산면, 남으로 포항시 송라면에 인접하고 있다. 동사동 계곡에서 새태양지 계곡까지 약 12km 구간에 펼쳐지는 절경은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태백산맥의 지맥인 동대산, 향로봉 계곡이 합쳐진 영덕 오십천의 발원지이며,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고 풍광이 좋아 산림욕을 즐기기도 좋다. 기암괴석을 돌아 흐르는 물소리는 옥이 구르는 것 같다. 포항의 최고 오지에 자리 잡고 있는 하옥계곡 초입에 들어서면 기암괴석과 노송들이 어우러져 비경을 연출한다. 사시사찰 토해내는 계곡의 옥수(玉水)는 향로교에서 하옥교까지가 절정이다.

● 내연산 12폭포

내연산은 태백준령이 빚어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산으로 골이 깊고 물이 맑은데다 12폭포를 간직하고 있어, 찾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내연산은 그 길이가 14km에 달하는 빼어난 절경의 계곡들을 품고 있어 더욱 진가가 높다. 정조 16년(1792년) 보경사에서 일생을 보낸 동봉은 “남쪽의 신구산과 북쪽의 내연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이 합하여 한 곳으로 흐르는데 그 수원이 30리나 되며 폭포와 절벽과 층벽, 기암괴석이 굽은 소나무와 함께 면면이 진열되었으니 이곳 사람들은 소금강이라고 부른다”고 노래했다.

청정 동해에서 막 건져 올린 물회 맛에 취해보자

동해 청정 바다가 풍어를 이룰 때 어부들은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사이도 없이 바빠서 큰 그릇에 막 잡아서 펄떡거리는 생선과 야채를 썰어 넣고 고추장을 듬뿍 푼 후 시원한 물을 부어 한 사발씩 후루룩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 고기를 어획하였다. 여기서 유래된 음식이 바로 포항물회이다. 처음에는 지역 어부들 사이에서만 유행했으나 그 맛이 시원하고 감칠맛이 있어 차차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포항지방 특유의 음식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음식의 명칭도 자연스럽게 ‘포항물회’로 불리게 되었다. 포항물회는 흰 생선살을 사용하여 단백질이 풍부하고 각종 양념으로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음식이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과음으로 상한 속을 풀어내고 원기를 북돋아주는 포항물회는 이제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포항 특산물로 되었다.

② 우리나라 지도의 꼬리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구룡포해수욕장. 반달모양의 백사장이 특징이다

③ 사시사찰 맑은 물이 흘러 풍광이 좋아 산림욕하기에 더없이 좋은 하옥계곡

④ 내연산 수목원의 계곡 물줄기

신나는 방학, 보람된 여름



경상북도수목원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1-1 내연산 남쪽 산줄기 600m 고지에 조성된 경상북도수목원은 그야말로 자연학습장이다. 총 3,222ha의 부지에 1,510종 17만9,226본의 나무와 풀이 식재돼 규모면에서 동양최대를 자랑한다. 특히 자연체험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실에는 목재표본과 약용 식물 야생동물 박제 등을 전시하고 야외에는 인공연못을 만드는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262-6110]

기청산식물원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362에 위치한 기청산 박물관(원장 이삼우)은 5ha의 넓은 전시면적과 2,000여종이 넘는 다양한 식물세계와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중 90%는 자생식물이다. 다양한 식물해설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야생화원, 양치식물원, 울릉식물원, 사상본초원, 아열대원, 수생식물원(용연지), 향기 향수원, Hosta&Iris원, 희귀멸종식물원, 습지원, 암석원, 해변식물원, 외래정원 등의 시설이 있고 언제든지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 232-4129]

포항환경학교

포항환경학교(교장 이정호)는 폐교된 학교 공간을 환경지킴이의 학교로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지나

● ● ● 여름방학이다.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은 그저 신난다. 하지만 방학은 학업의 연장이다. 방학은 자신의 부족을 보충하는 시기이자 평소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는 시기이다. 특히 교실 안에서 이룰 수 없었던 체험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사물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살아갈 공동체적 삶의 영역을 두루 체험함으로써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포항에서 보람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생태 문화 전통 등 체험 장소와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 ● ●

치고 잇기 쉬운 생활주변의 환경문제를 재인식시키고 환경보호를 스스로 실천케 하기 위한 체험 공간, 전시 공간 등 친환경 체험공간을 마련한 곳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환경체험을 위해 포항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체험시설이다. 학교단체와 개별모집을 합해서 하루 2회까지만 체험접수를 받는다. 체험학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체험신청은 최소 일주일이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종 환경 관련 영상 교육과 학교 내 체험을 비롯해 폐품을 활용한 각종 만들기 체험, 주변의 환경 시설과 연계한 환경체험도 실시한다. [문의 : 262-7469]

2009 여름방학 과학투어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이상 학생들에게 포항의 우수한 과학시설과 기초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09 여름방학 과학투어' 가 오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투어 내용은 과학기관 투어와 과학체험 투어로 이뤄지며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접수 안내는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기타 과학투어 문의 : 시청 미래산업팀 과학기술담당 270-2573]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등 기타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울진 왕피천 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먹거리의 중요성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취시키고자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관람후기를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하여는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고 : <http://www.ofex.or.kr>]

그리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66 사방기념공원(270-5884)과 덕동문화마을, 성동 메뚜기마을, 가사천지구 삼굿마을, 상옥참느리마을 등 청소년을 위한 각종 체험공간들이 준비해 있다.

- 1 경상북도 수목원
- 2 체험행사에 참가중인 시민들
- 3 로봇축제를 즐기고 있는 어린이들
- 4 기청산식물원에서 자라는 싱그러운 나뭇잎



1 | 2



3



4

형산강

에는 강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주진 나루가 있었대요.

“여보시오, 사공!”

강 건너편에 서서 소리를 지르면 마음씨 착한 뱃사공 공노인은 지체 없이 삐걱삐걱 노를 저어갔지요. 귀찮아하는 일도 없었지요.

배 샅을 주면 받고 없다는 사람은 그냥 내려 주었지요.

어느 해, 유월 한 달 내내 불별을 쏟아 붓던 날씨가 칠월이 되자마자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왔어요.

“하늘에 구멍이 났나 봐!”

공 노인은 나룻배를 끌어올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캄캄한 하늘이 무겁게 내려와 있었어요. 하루 종일 내리던 비는 밤에도 몇 차례나 내리 붓더니 새벽녘에야 그쳤어요. 밤새 빗소리에 잠을 설쳤던 공 노인은 일찌감치 나루로 나갔어요.

시뻘건 흙탕물이 형제산 중턱을 지나서 급하게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아이쿠 저걸 어찌지. 저걸, 저걸 어찌!”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공 노인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물살을 뚫고 배를 띄웠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배에다 끌어올렸어요. 한 배 가득 차면 강가로 나가서 내려놓고 다시, 또 다시 들어갔어요.

저녁 무렵, 지쳐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허우적대며 떠내려 왔어요. 공 노인은 얼른 끌어올렸어요. 어! 이번에는 큰 뱀이 뱃전에 기어오르려고 했어요. 젖던 노를 대주자 노를 타고 기어 올랐어요.

“살려 주세요, 살려…….”

어디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공 노인은 노를 멈추고 어두워진 물 위를 살폈어요. 열대여섯 되어 보이는 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그냥 떠내려 보낼 뻔했어요. 공 노인은 배를 그 아이 쪽으로 저어갔어요. 급한 물살과 씨름하면서 거의 의식이 없는 아이를 구했어요.

강가로 나오자 노루와 뱀은 노적봉 쪽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도, 집도 모두 물난리에 떠내려 가버렸다는 거였어요. 자식이 없어 외롭던 공 노인은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어요. 글도 가르치고, 사공일도 함께 하면서 살게 되었지요.

주진 나루 뱃사공 노인

| 글 | 김일광 · 동화작가

| 그림 | 최수정



이듬해 봄이었어요. 공 노인 집에 노루 한 마리가 들어와서는 팔딱거렸어요.

“어허, 이놈아! 겨울과 달라서 봄날에는 산에도 먹을 게 많을 텐데 뭐 일이야?” 공 노인이 노루를 밀어내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여름에 구해준 바로 그 노루였어요.

“아니, 이런 일이……?”

공 노인은 노루가 이끄는 대로 노적봉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가던 노루가 앞밭로 땅바닥을 차는 거였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공 노인이 땅을 파보았더니 상자가 하나 나왔어요. 금덩이가 그 안에 가득하였어요.

공 노인은 노루가 준 그 금덩이로 논밭을 사서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돈도 있게 되자 아들이 말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글공부와 농사일은 뒷전이고, 부조 장터를 쏘다니면서 친구들과 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였어요. 공 노인이 나무라고, 달래보았지만 헛일이었어요. 나중에는 공 노인에게 대들고 행패까지 부렸어요.

“잔소리만 하는 영감쟁이 당장 쫓아내버릴 거야.”

못된 아들은 사또에게 달려갔어요.

“사또 나리! 주진나루 사공이던 내 아버지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사또가 가만히 듣고 보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뱃사공이 하루아침에 논밭을 사들이고 큰 기와집을 짓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 나도 그 일이 무척 궁금하구나. 어디 말해 보아라.”

“내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고 그 재물을 약탈하여 부자가 되었습디다.”

사또는 곧바로 공 노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공 노인은 억울하다고 말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달이 환하게 뜬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감옥 문에 기대어 끄끙 앓고 있는데 커다란 뱀 한 마리가 기어들더니 공 노인을 턱씩 물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차라리 잘 되었다.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

공 노인은 소리도 지르지 않고 상처만 부둥켜안고 있었어요. 뱀독이 퍼지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갔어요. 아, 그런데 사라진 줄 알았던 뱀이 어떤 풀잎을 물고 와서는 상처 위에다 문질러 주는 것이었어요. 조금 지나자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몸도 거뜬해졌어요. 그제야 살펴보니 지난 여름에 구해준 바로 그 뱀이었어요.

“참 괴이한 일인지고.”

고개를 가웃거리고 있는데 옥졸들이 왈차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이 다 달아난 뒤라서 가만히 들어보니 사또 부인이 조금 전에 뱀에게 물렸는데 다 죽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공 노인은 무릎을 ‘탁’ 쳤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를 사또 부인에게 데려다 주시오. 내가 뱀독을 푸는 특별한 의술을 갖고 있어요.”

공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옥졸들도 처음에는 꺾등으로 흘리다가 하도 간곡하게 말을 하니 사또에게 데리고 갔어요.

발만 동동 구르던 사또는 에멜무지로 공 노인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공 노인은 뱀이 주고 간 그 약초를 부인의 상처에 붙였어요. 신기하게도 죽어가던 사또 부인이 거짓말처럼 살아났어요.

사또는 크게 고마워하면서 공 노인에게 약재를 보여 달라고 했어요. 공 노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 하였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노루, 뱀보다 못한 아들을 감옥에 가두고 공 노인은 풀어 주었대요.



제9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

7월26일부터 8월4일까지 열흘간 환호해맞이공원과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아홉 번째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열린다. 포항바다 국제연극제 진흥회(이사장 이병석)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연극제에는 국내외 19개 연극단체(해외4·국내15)가 참여하고 27일 저녁 8시 환호해맞이공원에서 개막식에 이어 러시아 Moon Theatre의 개막공연 "로미오와 줄리엣"이 공연된다.

• 공연일정안내

장소/일시	해맞이 (세익스피어 페스티벌) 20:30	달맞이 21:00	중앙공원 20:00	문화회관 소극장 20:00	문화회관 대극장 19:30
7/27(월)	대구시립무용단 햄릿에피소드 러시아 Moscow Moon Theatre 로미오와 줄리엣	극단 노들 귀환	김성구 마임극단 포항로맨스	극단 명품 행복한 죽음	
7/28(화)	인천시립극단 사랑과 광증	극단 노들 귀환	김성구 마임극단 포항로맨스	극단 명품 행복한 죽음	
7/29(수)	인천시립극단 사랑과 광증	프로젝트 그룹-연 말복	김성구 마임극단 포항로맨스		
7/30(목)	한국연출가협회 사랑의 첫수고	프로젝트 그룹-연 말복	김성구 마임극단 포항로맨스	달라스 한인 연극 협회 하루...	
7/31(금)	한국연출가협회 사랑의 첫수고	일본Gokuraku Musical Company 極樂歌劇團(극락가극단) 파라다이스 부부만세	김성구 마임극단 포항로맨스	달라스 한인 연극 협회 하루...	
8/1(토)	극단 골목길 햄릿	일본Gokuraku Musical Company 極樂歌劇團(극락가극단) 파라다이스 부부만세	김성구 마임극단 포항로맨스	장두이 레파토리 춤추는 원숭이 빨간피터 (모노드라마섹션)	
8/2(일)	극단 골목길 햄릿	극단성좌 블랙 코메디	김성구 마임극단 포항로맨스	장두이 레파토리 춤추는 원숭이 빨간피터 (모노드라마섹션)	
8/3(월)	극단 목화 로미오와 줄리엣	극단성좌 블랙 코메디	김성구 마임극단 포항로맨스	몰도바 Theatre Company 피카소의 여인들 (모노드라마섹션)	
8/4(화)	극단 목화 로미오와 줄리엣	윤영옥 댄스컴파니 "THE WALL" "Speaking With Movement"	김성구 마임극단 포항로맨스	극단 은하 버자이너 모놀로그 (모노드라마섹션)	포항시립극단 형산강아 말해다오

• 공연단체

인천시립극단
1990년 7월 창단된 단체로 지금까지 50회의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극단 「노들」
1993년 창단 되었으며, 해외에서 많은 공연을 하는 단체다.

한국연출가협회
연출가협회의 행사 중 아시아연출가전 출품작으로 작품을 위해 배우공개 오디션을 통해 모인 팀.

극단 「골목길」
2003년 연출가 박근형과 함께 동고동락 하던 배우들이 뭉쳐만든 극단

대구시립무용단
1981년 5월1일 창단된 단체로 지금까지 매년 2회의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공립 무용단체 중 국내 유일의 현대무용단체임

극단 「목화」
1984년 창단 되었으며 배우와 스태프 4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물레를 돌리는 마음"이라는 극단의 모토처럼 1년 365일 공연과 연습으로 채우고 있다

프로젝트 그룹 「연」
서울예술대학 학생들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 그룹으로 이 시대의 새로운 연극 문화를 주도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실용음악과가 음악을 만들어 융합을 통한 창작 활동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극단 「성좌」
리얼리즘 연극을 주로 하는 극단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을 무대로 하여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윤영옥 댄스컴파니
2006년 창단되어 현대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의 표현법을 접목시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장두이 레파토리
2003년 대학로에서 배우 중심의 극단 체제로 출발, 그동안 황금연못, 춤추는 파도, 통일 이스프레스 라방 유 등을 미국과 국내 무대에 올림

[공연]

[공모]

» 시립연극단 제115회 정기공연

-형산강아 말해다오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8월 4일(화)~5일(수)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시승격 60주년 경축음악회

-빛의 노래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8월 14일(금)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문화예술회관 초대 3인 3색전

- 주최주관 : 문화예술회관
- 일 시 : 8월 18일(화)~23일(일)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

-카르멘 발체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8월 19일(수) 11: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 한여름 밤의 팝스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8월 28일(금) 20:00
- 장 소 : 환호공원

» 포항소재 문학작품 현상공모

포항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포항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공모합니다. 포항은 철강도시, 첨단산업도시이기도 하지만 물화와 과메기를 통해 맛의 고장으로도 알려졌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기 위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해맞이 고장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해변에서 열리는 국제불빛축제와 바다연극제 등에 참여해 여름휴가를 멋지게 보낼 수 있는 휴양도시이기도 합니다.

포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적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왔습니다. 칠포의 암각화를 통해 보듯 선사시대의 생활 터전으로, 왜구의 침입을 막던 군사적 요충지로, 포은과 해월을 탄생시킨 정신사의 요람으로, 많은 학도병이 희생을 무릅쓰고 지켜낸 땅으로, 대도, 송도, 죽도, 해도, 상도라고 불리는 섬들의 삼각주를 개발해 산업을 이룩한 거처로, 빛으로 미래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름답고 힘찬 포항의 모습을 글로써 보여주십시오. 글로벌 포항의 빛나는 미래를 드러내는 훌륭한 글을 써주십시오. 포항 역사의 발자취는 물론이고 포항 문화의 넓이와 깊이도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일류 도시이며 문화도시이기도 한 포항시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포항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해주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응모바랍니다.

- 공모부문 : 시, 단편소설, 수필
- 응모자격 :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공모기간 : 2009년 7월 1일~2009년 8월 31일
- 응모편수 : 시 3편 이상, 단편소설 1편 이상, 수필 2편 이상
- 응모요령 : 인터넷 (<http://lovepohang.net>)
- ※ 반드시 홈페이지의 요령을 따라서 응모해야 응모작으로 인정합니다.
- 상금내역: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각 부문 당 1명씩 계3명) 각 100만원, 우수상 (각 부문 당 2명씩 계6명) 각 30만원
- 입상작은 기성 문인들의 포항소재 작품과 단행본에 수록
- 표절한 작품이거나 이미 다른 지면에 발표된 작품인 것이 밝혀지면 당선이 취소되며 응모자의 성명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함
- 문의처 : 한국문인협회 포항문협 054-281-0930

“포항 사랑, 쌀 사랑” 포항 쌀 소비 캠페인 본격화



① 포항시가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포항지역 쌀 재고는 7,600톤. 오는 9월까지 이를 소비하지 못할 경우, 가을에 있을 벼수매에 차질이 빚어진다. 결국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한다. 벌써부터 들녘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포항시가 지역 쌀 소비 운동에 나섰다.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동참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쌀 관련 기관·단체장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달 초에는 ‘쌀 유통사업단’을 구성했다. 먼저 포항시 공무원 지역 쌀 팔아주기(1인당 20kg기준 10포) 운동부터 시작했다. 동시에 지역 쌀 소비 정착을 위한 ‘10만 가구 포항 쌀 이용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쌀 유통사업단 참여기관 간 ‘상호업무협력’ 협약을 갖고 지역 쌀 소비 촉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형급식소와 요식업소를 상대로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대형마트에 지역 쌀이 입점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 구매 추세에 맞춘 주문 배달체계 확립과 품질보증제 등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통해 지역 쌀 이용 평생고객을 적극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시민 캠페인도 적극 벌일 예정이다. 지난 6일에는 제14회 여성주간 기념식 부대행사로 지역 쌀 소비 캠페인을 전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2,000여 주부들을 대상으로 ‘포항 쌀 먹기’를 실천하겠다는 서명활동도 벌였다. 오는 23일에는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쌀 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1만여 명이 참석하는 ‘포항 쌀 소비촉진 범시민 다짐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포항에는 지금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자는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의 막이 오르고 있다.

이러한 로컬 푸드 운동은 유통 단계와 거리를 줄이는 생산자운동(더 많은 이익 창출)이자 소비자운동(더 많은 권리 창출)이며, 녹색환경운동(탄소 배출 저감)이자 건강사회운동(먹을거리 위협해소)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먹을거리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로컬 푸드 운동은 얼굴을 아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를 촉진시켜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포항 지역 쌀, 영일촌 쌀

깊이 있는 안목의 시작

2009 포항시립미술관 미술교양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포항시립미술관은 개관과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시민을 위한 미술교양강좌를 엽니다. 이번 강좌는 미술관시대를 맞이하는 포항시민에게 미술관 개관의 의미를 알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와 작품, 그리고 다양한 활동은 일상과 동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 그리고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산물입니다. 강좌는 그러한 미술(예술)이 삶 속에서 지니는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문화예술시대를 사는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지니고 삶의 가치를 폭넓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미술과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으로부터 현대미술의 이해, 문화생 산자로서의 시민의 역할과 활동 등에 듣고 이야기하며, 작가·큐레이터와 대화의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나누는 문화생산과 문화복지의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좌 수료 후, 지원자는 전시안내(도슨트)를 비롯한 자원봉사, 미술관 업무지원 등 포항시립미술관을 시민의 미술관으로 함께 가꾸는 일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

강좌개요

- 강 좌 명 : 포항시립미술관 시민 미술교양강좌 『깊이 있는 안목의 시작』
- 강좌기간 : 2009년 8월26일(수) ~ 10월28일(수) (매주 수요일 14:00~16:00)
- 대 상 : 포항시민
- 수 강 료 : 없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8월21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서배부 : -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www.ipohang.org)
- 포항미술협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 참조 (www.pohangart.com)
*첨부 화일을 다운받아 기록 후 접수
- 접수방법 : 미술관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pksart@korea.kr)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 포항시 북구 환호동 351번지 해맞이공원내 포항시립미술관
- 문 의 처 : 포항시립미술관학예실 (054-270-4632)

교육내용

기간	강의일자	내 용
1	8. 26	포항시립미술관,우리지역문화의 요람
2	9. 2	미술관이란 무엇인가(Museum 이해)
3	9. 9	인간, 삶, 미술(인간과 예술)
4	9. 16	우리시대의 문화, 우리시대의 미술 (21세기 대중문화 시대의 미술)
5	9. 23	현대미술 이해 I (모더니즘 미술)
6	9. 30	현대미술 이해 II (동시대미술의 동향)
7	10. 7	동양회화의 이해
8	10. 14	작가로부터 듣는 미술 이야기
9	10. 21	큐레이터로부터 듣는 미술이야기
10	10. 28	문화복지의 문화자원 봉사의 의미

영일만항 부품소재 전용공단 '본 지정'



영일만항 제1 일반산업단지 내 330,000㎡가 이달 9일 외국인전용 투자지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지난해 12월 조건부지정이 이뤄졌으나 포항시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부품소재단지 IR을 한데 이어 최근 5개 업체 유치에 성사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본 지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정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가 보다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해오던 부품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져 지역 내 생산성 제고와 수출증대, 기술이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부지조성에 대해 국비 75%, 도비 12.5%를 지원받게 되어 국비 500억 원을 확보,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어 저렴한 가격 또는 무상으로 부지임대, 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이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내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부품소재 전용공단 투자유치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난달 27일 일본 산업신문과 철강신문, 그리고 기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일본 부품소재업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여 이틀로부터 "포항부품소재전용공단은 글로벌 생산기지로 메리트가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

포항시 '하이파이브 프로젝트' 선언



포항시는 영일만항과 일반산업단지 등 5대 대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들 사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는 '하이파이브(High-Five)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박승호 포항시장 취임 3주년을 맞아 발표된 하이파이브 프로젝트는 영일만항권의 영일만항과 영일만항 일반산업단지, 흥해권의 지식기반 경제자유구역, 지곡연일권의 테크노밸리, 오천동해대송권의 포항블루밸리, 도심권의 동빈내항 복원사업 등 5개 권역에 역량을 집중, 포항발전을 건인한다는 것으로 목표 연도는 2014년이다.

특히 영일만항권과 흥해권, 지곡연일권, 오천동해대송권은 생산 및 성장 거점으로, 도심권은 동빈내항

복원을 통해 환경 및 생활 거점으로 육성하는 4+1 전략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일만항권은 오는 8월 8일 개항하는 영일만항이 포항을 환동해권 물류중심으로 격상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영일만항 배후에 들어서는 일반산업단지 634만㎡(192만평)는 신소재 및 메카트로닉스 업종과 일반부품소재업체가 입주해 글로벌 포항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흥해권 지식기반경제자유구역은 375만㎡(113만평)규모로 바이오 의료 등 융합산업플렉스와 R&D 혁신센터, 글로벌기업 등 융합기술플렉스 외에 호텔, 컨벤션 등 국제지식비즈니스파크와 주거·휴양복합단지인 글로벌 교육문화타운이 들어선다.

지곡연일권 테크노밸리는 277만㎡로 환경 친화적 생태산업단지와 미래지향적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며 오천동해대송권 포항블루밸리는 664만㎡ 규모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며 현재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해 높은 상태로 주민설명회도 거쳤다.

도심권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가 9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 상당수가 사업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적절한 보상만 이뤄지면 10월에 공사에 들어가 2011년에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테크노밸리 개소식 갖고 본격 가동



'하이파이브 포항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포항테크노밸리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7월 2일 박승호 포항시장, 최영만 포항시의회의장, 김을성 포항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내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개소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포항테크노밸리는 올 하반기부터 금융협상과 사업협약안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포항테크노밸리는 277만㎡ 규모의 산업단지로서 총사업비 5,77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6년까지 테크노파크, 그린파크, 컬처파크, 휴먼파크 등 4개 파크로 조성된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해요!

포항시는 지난 4월부터 교통카드 전국 호환제 시행과 함께 수협BC 후불카드를 도입한 후, 시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현대·롯데 후불교통카드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후불교통카드는 기존의 선불교통카드와는 달리 별도의 충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에 맞춰 자동 결제되는 제도로 충전, 잔액부족과 같은 불편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포항시 '희망근로사업' 빠르게 안착

포항시 희망근로사업이 주민편익이 지속되는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출발 당시 60대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웃돌고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추가 선발·배치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으나 포기자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희망근로사업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포항실내체육관 관중석 자리 등 25년 묵은 때를 벗기고 종합경기장 주변도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영일만항 이용 MOU 업체와 간담회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항만운영 본부에서 박승호 포항시장과 권준영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을 비롯한 포항지역 MOU체결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이용 포항지역 MOU체결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포항~블라디보스톡~보스토티치를 잇는 극동노선과 포항~니가타~나오츠~토야마를 연결하는 일본 서안노선, 포항~고베~오사카~도쿄를 연결하는 일본동안노선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MOU체결업체들의 화물이 정시에 원하는 노선에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영일만항을 이용할 경우 업체가 얻을 수 있는 각종 이익과 혜택 등을 통해 부산항을 이용할 때보다 컨테이너 당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포항시 부서장들, 항만 물동량 유치 결의

포항시는 영일만항 개항을 50일 앞둔 지난달 19일 '대구·경북 물동량 유치'를 위한 A-Grade5 (5급담당제) 포트세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체계적인 항만 마케팅 구축과 간부공무원의 현장 항만포트세일로 대구경북 기업체의 물동량을 유치하고자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정용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30개 실·과·팀 부서장이 참석해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결의와 토론을 통해 영일만항의 성공을 다짐했으며, 구체적인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포트세일 교육도 실시됐다.

포항 생활과학고실, 과학대중화 최우수

포항시와 포항공대가 운영하는 읍면동 생활과학고실이 2008년도 생활과학고실 운영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0일 포항공대 과학기술진흥센터(센터장 임경순)가 운영기관 부분 교과부 장관상을, 포항시가 지원기관 부분 과학창의재단이 시장 감사패를 각각 받았다.

대만 묘율현, 20년 만에 포항과 교류 물꼬



포항시와 대만 묘율현의 교류가 20년 만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유정홍 대만 묘율현 현장과 현 산하 시장 일행 30명은 지난달 23일 포항시청을 방문, 양도시간 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현장은 "묘율현은 지난 84년 영일군과 자매결연했으나 국교단절로 양도시 의사와는 관계없이 교류가 중단되었으나 포항의 세계적인 철강기술과 첨단과학인프라, 도시 개발분야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승호 시장은 "포항은 일본과 북한, 러시아, 중국을 잇는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도시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항 '저탄소 녹색' 자전거도로 거듭난다

2020년까지 포항시에 116개 노선에 318km의 자전거 도로가 새로 생겨나거나 정비되며 50개소에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된다. 박승호 포항시장장은 지난달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전거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시민 포럼에 참석, '자전거 도시를 위한 포항시의 구상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초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구간, 동비부두정비 구간 각 1.3km를 포함, 모두 21개 노선 47.5km에 56억5,000만 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는 한편,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16개 노선 320km에 460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슈퍼모델 선발대회 성황리 마쳐



SBS가 주최하고 포항시가 시승격 60주년 경축행사로 후원한 '2009 아시아-태평양 슈퍼모델선발대회'가 6월 19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류스타 류시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대회는 시민 등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한국, 중국, 일본, 태국의 슈퍼모델 33명이 경합을 벌였다. 1·2부 슈퍼모델 선발에 이은 3부 행사에는 슈퍼모델 33명과 함께하는 '2009 사랑나눔 패션 페스티벌'과 SS501,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손담비, 장윤정, 박현빈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 포항시 친환경농업 가시적 성과 나타나

포항시 기계 기복면 특성과 친환경단지에서 멸종위기종인 '긴 꼬리 투구새우'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포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성화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425ha에서 최근 긴 꼬리 투구새우가 발견되어 친환경 농업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지적이다. 긴 꼬리 투구새우는 2005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생물로 논에서 농약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 포항 선진 농업을 배우러왔어요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회원국 농업연수단 22명이 지난달 29일 농촌체험을 위해 포항을 찾았다. 연수단은 이날

포항방사광가속기와 포항로봇연구소를 견학하고 포항시청을 방문해 포항시 농업행정제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청하면 청계리 농심 체험농장에서 민속놀이와 전통문화체험과 함께 '농촌관광사업 성과 및 전망'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 일본 '아루키 맵' 포항관광지도 만든다

일본인관광객에게 포항을 알리는 관광지도가 일본 관광안내책자 전문 회사에 의해 제작된다. '아루키 맵' 우에다 미즈호 편집인 등 제작팀이 지난달 29·30일 양일간 포항을 찾아 취재했다. 이 관광지도는 일본 JR 큐슈고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후쿠오카 간 고속여객선인 비틀호에 비치되고 있는 일본어판 한국관광지도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 진주, 경주에 이어 포항이 4번째로 제작된다.

》》 일본인 관광객 유치 탄력 받았다

포항 구룡포 일본인가옥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돼 시판에 들어감에 따라 포항시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 1만 명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에히메신문여행사가 최근 구룡포 일본인 가옥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해인사 8만 대장경, 수원화성, 종묘 등 한국의 5대 세계 문화유산과 연계해 판매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번 상품은 지난 2월 국내 최고의 인바운드여행사인 체스투어즈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구룡포에 살았다 출판기념회, 포항 워크, 일본 언론사 취재 요청 등 포항의 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홍보한 결실로 일본인관광객 유치 1만 명 사업이 갈수록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세계 한인언론인 70명 포항 방문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인언론인들이 포항에 왔다.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정락성 회장을 비롯한 회원 70명은 지난 9·10일 포항을 방문, 영일만항과 포스코 등을 둘러보고 박승호 포항시장과 포항시승격 60주년을 맞은 포항시의 비전 등에 대해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한인언론인 방문은 지난해 포항에서 열린 월드옥타 때 세계언론인연합회의 관심을 끌면서 이뤄지게 됐으며 포항시장 인터뷰를 통해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한인들은 물론 세계 속에 포항을 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제156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인 포항시의회가 지난 7일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56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포항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포항시-중국 장가항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81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107건을 감사결과로 확정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개선토록 주문했다. 또 지난 2일부터 양일간 실시한 시정 질문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나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내용면에서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5대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열린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성조, 안정화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 새마을금고 분사무소 설치 분장과 포항시 농업발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추진을 주문했다.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예습에 올인



포항시의회는 2009년 상반기 의원연수를 지난달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안동소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실시했다. '의정실무' 대한 전문강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제1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을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적인 기법과 전략'에 대한 강의도 들었다.

》》 개원 3주년 기념,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포항시의회는 지난 7월 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역대 의장을 초청하여 제5대 포항시의회 개원 3주년의 성과를 조명해 보고 앞으로 남은 1년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양영주·진병수 2대 전·후반기 의장, 박태식·임선순 3대 전·후반기 의장, 박문하 5대 전반기 의장 등이 참석하여 시정 및 의정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역대 의장들은 대부분 포항 발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시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귀넷카운티 배니스티 의장 일행 시의회 방문



포항시의회 최영만 의장은 지난 1일 포항시와 교류의향서 체결을 위해 내방한 미국 조지아주 귀넷카운티의 찰스 배니스티 의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이번 교류의향서 체결이 양 기관 간 정보기술, 경제, 문화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교류를 확대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 도시가 교류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상호 윈-윈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귀넷 카운티는 인구 약 73만 명으로 조지아주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카운티이다. 특히 이곳은 한인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 제2의 한인타운으로 불리고 있다.

》》 일본 하마다시 한글모임회원 시의회 방문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5일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호미곶 관광지 등 일본과 관련된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해 포항을 방문한 일본 하마다시 한글모임회원 후세타케시(시마네현 공립고등학교 교사) 단장 일행의 내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만 의장은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본 관광객 1만 명 유치계획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8월 개항을 앞둔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조성되는 부품 소재 전용 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하마다시 한글모임회는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시에서 20년 전부터 한글과 한국문화 및 한국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한 시민 클럽으로 현재 공무원, 교사 등 6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 포항~제주 간 취항!!

- 취 항 일 : 2009년 7월 31일
- 운항횟수 : 주 3회 (화·금·일요일)
- 운항기종 : B737-400 (160석)
- 운항시간 : 제주(출발) 13:40 ~ 포항(도착) 14:40
포항(출발) 15:10 ~ 제주(도착) 16:10
- 운 임 : 65,900원(주중), 74,900원(주말), 82,900원(성수기)
단,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별도

>>> 2009 포항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포항산악자전거연합회는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고 제5차 국가 대표 선발전으로 추진되는 '2009 포항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포항시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대한사이클연맹과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주관한다.

- 기 간 : 8월1일~8월2일(2일간) ※개회식 8. 2(일) 10:00
- 장 소 : 도음산 전용경기장
- 참가규모 : 1,000명(선수600, 진행100, 갤러리·가족300)
- 경기종목 : 크로스컨트리 - 상급자(45km),중급자(30km),초급자(15km)
다운힐 - 2.5km
- 참가안내 : www.kcfmtb.or.kr

>>> 포항시 제6회 에너지의 날 행사

- 목 적 : 정부·기관·기업·개인의 대대적인 에어컨 끄기 및 전국동시 소등 참여를 통한 에너지절감 실천 확대
- 일 시 : 8월19일(수) 14:00 ~ 22:00
- 장 소 : 포항시청 일원(메인 행사장)
- 내 용 : 에어컨 1시간 끄기 캠페인(14시~15시), 기후변화체험관(14시~19시), 에너지절약홍보관 및 신재생 에너지 체험관(14시~19시), 에너지의 날 기념 전국동시소등 포항행사(8월19일 21:00부터 10분간, 포항시청일원) 등
- 주 관 : 포항녹색소비자연대(253-2227) 등

>>> 2009 원복 독후감을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포항시민 누구나
- 공모서명 : 2009 원복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저, 창비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가로쓰기) 10~15매 내외
- 응모방법 : '독후감 공모 응모작' 기재 후 원고지 첫 페이지에 제목, 근무처(학생,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후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접수기간 : 2009년 9월1일~9월15일(15일간)
- 접 수 처 : 709-701 포항시 북구 삼호로 51 포은도서관 2층 사무실 사서담당(270-5672 담당 이상희)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포항시에서는 7월 10일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납세자는 구청 또는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우면 남구청 세무과(270-6241), 북구청 세무과(240-7241)로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 우송해 준다.

문의 : 남·북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고지서 뒷면 참조)

>>>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신청 접수

- 대회일시 : 9월27일(일) 08:00 (출발 08:30, 바다시청 앞)
- 대회장소 : 북부해수욕장 일원
- 참가인원 : 10,000명
- 경기종목 : 3종목(5km, 10km, 하프마라톤)
- 신청기간 : 7월8일 ~ 8월14일
- 신청방법 : 인터넷 festival.ipohang.org, FAX(277-8957) 또는 방문(읍면동, 구청, 시체육회)
- 참 가 비 : 하프 10km(2만원), 5km(1만원, 초중고 5천원)

>>> 포항해양스포츠클럽 회원모집

포항해양스포츠클럽은 학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회원을 모집한다.

- 운영기간 : 2009년 7월1일 ~ 12월31일
- 종 목 : 5개 종목(조정, 카누, 윈드서핑, 제트스키, 수영)
- 장 소 : 형산강 조정경기장, 북부해수욕장, 우방스포츠타
- 모집대상 : 시민, 학생, 기업체 등
- 모집인원 : 종목별 40명 선착순 접수
- 교육기간 : 매월 8회(매주 토, 일요일)
- 참 가 비 : 성인 종목별 2만원(단, 제트스키는 1일 2만원)
청소년/노인 종목별 1만원(단, 장애인은 무료)
- 모집시기 : 매월 15일 ~ 30일까지
- 접 수 처 : 포항해양스포츠클럽(282-2223, FAX 282-2223)

>>> 기초노령연금 25일로 당기고 대상도 확대

포항시는 기초노령연금을 6월부터 25일로 당겨 지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의 약 80%까지 연금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 및 금융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 금융재산 등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초노령연금지급 대상은 단독일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68만 원 이하이며 부부일 경우 108만 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된다. 지급연금은 단독어르신은 월 최고 8만8,000원 부부는 월 최고 14만 800원이다. 신규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사본,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자필서명)를 지참해야 된다.

>>> 과태료 미납 시 신용불량자 될 수 있다

강화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시민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등록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 압류조치 :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부동산·급여(봉급)압류
 -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상당 가산금 부과
 - 30일 범위 내에서 구치소 감치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 관허사업 제한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500만 원 이상은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신용도 하락 : 신용정보기관에 체납관련 자료 제공 가능
 - 자진납부 시 과태료 경감 : 20% 범위 안에서 경감 가능
- 【문의 :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270-5584~5)】

>>> 7월 포항시민 교양대학 안내

- 일 시 : 7월29일(수) 오후2시
 - 장 소 : 시청 문화복지동 공연장
 - 강 사 : 이왕재 교수 (서울대 의대)
 - 주 제 : 중년의 건강관리
 - 대 상 : 포항시민 누구나 (무료)
- 【문의 : 포항MBC(289-0122), 시 평생학습과 (270-2871)】

>>> 8월 시민정보화 교육(무료) 안내

- 교육과정 : 컴퓨터왕초보 등(9개과정 9개반)
 - 교육대상 : 포항시민 누구나(기 이수한 교육과정 수강신청불가)
 - 교육 및 신청 접수 장소
-시청 시민정보화교육장 강의실(문화복지동 2층) T.270-5825
-남구 시민정보화교육장 1·2강의실(종합운동장 2층) T.270-5823
-북구 시민정보화교육장(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층) T.270-5824
 - 신청기간 : 8월3일(월) 09:00부터 선착순
 - 인터넷접수방법
“강좌/시설/공연 안내서비스”로 접속 후 아이디란에 ipohang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아이디 없을 경우 회원가입 후 실행), 최근 강좌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명 선택
※ 사진편집 및 블로그만들기 100%, 기타과정은 접수인원 50%
- 【문의 : 정보통신과 지역정보담당 (270-2304)】

>>> 2009 지방자치학교 운영 안내

- 포항시의정회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주최하고, POSCO와 포항시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하는 2009년 지방자치학교를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개강일시 : 8월 4일(화) 오후2시 ※ 1x40분까지 등록, 사진 1매 지참
 - 장 소 :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
 - 모집대상 :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에 관심 있는 분

- 모집방법 : 선착순(좌석이 다소 불편함)
 - 수강비용 : 20,000원(농협 745-01-016411 포항시의정회)
- 【문의 : (사)포항시의정회(249-3700, 팩스247-9922)】

>>> 포항시 알리미 문자서비스 안내

현대전화로 포항시 행정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포항시 알리미에 가입하면 민원처리 진행 및 결과 안내,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안내, 지방세 납기, 과오납금 환부, 민방위 교육안내 등 각종 행정사항을 안내해 준다. 포항시 알리미 가입방법은 무료전화 ARS 080-333-1472(본인명의의 현대전화로 전화)로 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접속 후 '포항시 알리미' 배너클릭, 또는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 자전거 무단방치 '이제 그만'

포항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자전거 보유 및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 자전거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1월까지 '자전거 보유 및 이용 실태 조사'에 희망근로요원을 투입하여 29개 읍·면·동 약 1만 세대를 직접 방문, 설문형식으로 조사한다. 또 '방치 자전거 처리 사업'으로 시내 전 지역에 처리요원을 투입, 도로 및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실태를 파악한 후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예정 안내문'을 부착, 10일이 경과하면 수거 및 처분하게 된다.

>>> 하나로 민원 서비스 안내

구비서류 없는 세상, 이제는 민원 신청서 한 장이면 OK! e하나로 민원이란? 시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이다.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기종은 e하나로 민원 홈페이지(http://pr.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르신들, 무더울 땀 이렇게 하세요!!!

폭염주의(일 최고 기온 33도 이상) 또는 경보(일 최고 기온 35도 이상)발령 시 어르신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주세요. 특히,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12시~16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가볍고 밝은 색의 옷을 헐렁하게 입고 챙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휴대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물을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기증·메스꺼움·두통·근육경련 등이 있을 때에는 시원한 곳에서 쉬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드세요.

>>> 내가 지킨 기초질서는 선진사회의 시작!

포항남·북부경찰서는 오물방치, 광고물무단첨부, 침 뺧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킨 기초질서는 선진사회의 시작입니다.

2009년 포항시 여성상 수상자

2009년 포항시 여성상 수상자로 최채원(74세·사진 왼쪽) 씨와 이평재(62세) 씨가 선정됐다. 포항시는 6월 22일 포항시여성발전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상 수상자로 교육·문화·예술 분야에 최채원씨, 사회봉사 분야에 이평자를 선정 했다.

최채원씨는 23년간 후학양성에 힘쓴 교육자였으며, 한빛라이온스 창립해 여성권익향상 증진에 이바지 하였고, 학교 청소년 진학지도,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전통윤리 사상과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고취한 바 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 신부대학을 개설해 다도 교육 및 국산차 보급 운동 추진과 새마을장학회를 운영한 것 등의 공로가 인정됐다. 이



평자씨는 경상북도 미용 협회 지회장과 포항지회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부 교화위원으로 재소자 기술자격취득을 지원해 사회갱생과 재범방지에 많은 노력과 왕성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또한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다도 및 예절체험학교를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을 시킨 것 등의 공로가 인정됐다.

▶▶▶ 결혼이민자들도 장학기금 기탁에 가세

포항시 장학기금 모금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포항시 여성문화회관의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5월 원-원 한마음축제 시 알뜰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 303만8천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이 지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 아시아음식 체험부스 운영으로 모은 수익금 78만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그리고 자동차부분정비조합(대표 차재현) 300만원, 민족화합통일 연대(의장 정용락) 200만원, 숙박협회(대표 김동규)가 2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기탁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신진해운(대표 하세봉)이 2000만원, 공직자가족봉사대(대표 정복화)가 100만원, 포항시청노동조합(대표 김삼성)이 134만원을 장학기금을 각각 기탁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김춘희 국제로터리클럽 3630지구 여성총재가 취임식 경비를 절약해 포항시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 가정형편 어려운 부부에 '행복한 결혼식 선물



포항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13쌍 부부에게 지난달 30일 무료결혼식을 제공했다. 이날 결혼식은 합동결혼

식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고자 일반예식처럼 각 쌍마다 예식홀을 별도배정, 시간대별로 가족, 친지가 모인 가운데 행복한 예식이 되도록 배려됐다.

이번 무료결혼식은 대왕예식장 직원들이 일일호프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예식홀, 드레스, 턱시도, 신부화장, 사진, 하객음식 등 비용을 부담했으며, 영일만라이온스가 1박2일 신혼여행 경비를, 현대고속관광이 신혼여행 왕복교통편을, 농협 포항시지부에서 생필품을 후원했다.

▶▶▶ 남포항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쌀 전달

남포항라이온스클럽(회장 정창택)은 1일 사랑의 10kg 쌀 100포대를 원광보은의 집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남포항라이온스클럽 정창택(6대)회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축하 화환대신 쌀로 받아 기증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 장학기금, 봉사단협의회 참여로 다시 불붙어

포스코인증공급사 봉사단협의회(회장 김완기)가 지난 9일 장학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봉사단협의회는 포스코에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사 중에서 품질, 기술력, 납기, 신용도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 받은 업체로만 구성된 순수한 자원봉사 단체이다. 현재 회장사인 조선내화 등 1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 연일읍, 각종 생활체육대회 우승 독차지

'건강한 체력은 연일의 힘'이라는 슬로건아래 연일읍체육회(회장 박성태)가 올해 포항시에서 주최한 각종 생활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휩쓰는 돌풍을 연출하며 체육도시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 포항체육관에서 개최된 포항시승격 60주년기념 제 6회 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포항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 결과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가진 어머니배구대회에서도 1위의 영예를 안았다.



| 제목 | 숲의 속삭임 | 크기 | 90.9X72.7cm | 재료 | Oil on canvas



김영수 Kim Young Su

내마음의 풍경전 정기전 1-8회(포항문화예술회관, 포스코 갤러리) / 초대전 1-6회(롯데백화점, 포항공항공청, 청림주민센터) / 시립미술관기금 마련전 / 포항여성문화제초대전 / 세오너문화제 초대전 / 포항이협 송년전 / 불빛 미술 대전 1-2-3-4회 다수 입상. 신라미술대전 등 / (현)풍경회 회장, 장성초등병설유치원 미술특기교사, 포항교육청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세화고등학교운영위원

가이아의 숲속

솔향은 여기까지 날아오지 않아도 숲 속의 꽃이 피고 진다는 소문은 내 귓전까지 들려온다. 오랜 기간 풍경을 대상으로 회화적 의미를 탐색해 오고 있는 김영수는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한 풍경을 주로 소재 삼는다. 그의 숲 풍경은 실경과 사생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재현의 과정과 해석의 과정이 씨실과 날실처럼 교직되어 있어 마치 자연의 숲의 정기를 화면 위에 불러낸 듯하다. 아득함이 혼자 흘렀을 오래된 숲속 가상의 꽃처럼 그의 회화적 자연은 푸른 가이아의 보이지 않는 중심을 향해 무한히 개화하고 있다.

[김영수 포항시립미술관장]